

따뜻한 봄날 <김형영>

어머니, 꽃구경 가요

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

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

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

따뜻한 봄날 <김형영>

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

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

아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

봄구경 꽃구경 눈감아 버리더니

따뜻한 봄날 <김형영>

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
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
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
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
솔잎을 뿌려서 뭐 하시나요
아들아, 아들아, 내 아들아
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
산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

따뜻한 봄날<김형영>

어머니, 꽃구경 가요
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
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
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

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
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
아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
봄구경 꽃구경 눈감아 버리더니

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
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
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
꽃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
솔잎을 뿌려서 뭐 하시나요
아들아, 아들아, 내 아들아
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
산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